

연명의료중단결정 업무 위탁 ...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자체 윤리위 설치 어려운 기관 위해 권역별 8개 의료기관 지정

연명의료중단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윤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을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올해 2월 4일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5월 1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79개, 병원 5개, 요양병원 16개, 의원 1개 등 143개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총 8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했다.

지정된 기관은 고려대 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이다.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른 위탁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위탁비는 수시 상담 및 관리, 연 1회 집합교육 제공을 포함해 연 400만원이며, 심의 건당 30만원이다.

공용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위탁업무 수행 계획을 위탁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위탁기관은

심의 등을 위한 공용윤리위원회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한 경우라도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연명의료계획서 및 관리료 등 연명의료결정 관련 단, 말기환자 등 관리료는 직접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윤대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면 중소규모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 관련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용윤리위원회 설치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2018 모유수유 및 출산장려 캠페인

전국 10개 시도간호사회 참여

대한간호협회 전국 10개 시도간호사회에서 '2018 모유수유 및 출산장려 캠페인'을 전개한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온 국민이 엄마젖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깨닫고, 엄마젖 먹이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1995년부터 매년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모든 아기가 모유를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간호사들이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올해 모유수유 및 출산장려 캠페인은 전국 10개 지역에서 시도간호사회 주축로 열린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회를 공동개최하거나 후원한다.

서울시간호사회가 6월 19일 '간호사와 함께하는 엄마 아빠의 아가 사랑 페스티벌' 형식으로 행사를 열고, 이어 9개 시도간호사회에서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6월 27일에는 대구시간호사회, 7월 10일에는 경북간호사회가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연다.

8월에는 경남간호사회(22일), 제주도간호사회(22일), 부산시간호사회(23일), 광주시간호사회(24일), 울산시간호사회(28일), 강원도간호사회(29일)가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9월 13일에는 충남간호사회가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연다.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는 각 지역별 대회일 기준으로 생후 4~6개월 또는 5~7개월 된 모유를 먹고 자란 아기가 참가할 수 있다.

선발대회와 함께 각 시도간호사회별로 모유수유 상담교과, 출산장려 페스티벌, 아가마사지 교육 등이 진행된다.

한편 올해 모유수유 및 출산장려 캠페인은 한국존슨앤드존슨, 이븐플로, 필립스아벤트, 유한킴벌리, 더블하트 스킨케어 등에서 협찬한다.

최수정 기자 schoi@



간호조직체계·문화혁신
배지 달기 캠페인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건국대병원 간호부(간호부장 오경미) 41명동 간호사들이 참여했다.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김해 thecn 병원 간호부(간호차장 문정은)에서 참여했다.

2018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일정표

지역	일시	장소	문의
서울	6월 19일	서울시민청 시민플라자	02)853-5497
부산	8월 23일	해운대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	051)253-3824~5
대구	6월 27일	호텔인터불고대구 즐거운울	053)756-8485~6
광주	8월 24일	상무리초컨벤션웨딩홀	062)227-7561
울산	8월 28일	울산시청 시민홀	052)258-2311
강원	8월 29일	춘천베어스호텔 소양홀	033)263-6417, 6419
충남	9월 13일	온양그랜드호텔 갤러리홀	041)569-6348
경북	7월 10일	경주현대호텔 컨벤션홀	053)743-2721
경남	8월 22일	풀만버서더창원 그랜드볼룸	055)262-6006
제주	8월 22일	오리엔탈호텔 한라홀	064)747-381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86.7%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패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101곳이 공개됐다. 2017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86.7%로 명단공표 시행 이후 가장 높게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패조사' 결과에 따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88곳과 실패조사 불응 사업장 13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2개 이상 일간지와 복지부 및 고용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실패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86.7%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253곳 중 1086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위탁보육하고 있었다.

이는 2016년 81.5%에서 5.2%p 증가한 것으로, 2013년 명단공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지원했다.

사업장별로는 국가기관의 설치의무 이행률이 93.1%로 전체 사업장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병원은 87.0%였으며 국공립 병원은 91.7%, 사립병원 86.0%로 모두 전년 대비 이행률이 높아졌다.

미이행 사업장 167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주혜진 기자 hjoo@

'한국형 원헬스' 기반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 실현

국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원헬스에 기반한 다분야·다부처 공동대응체계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최근 신종감염병 등으로 감염병 발생총량은 증가하고 메르스, 에볼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 항생제 내성, 원인불명 질환 등 건강 위협 요인이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가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감염병 위기대응 및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담은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부처 간 유

기적 협력과 공동대응을 위해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원헬스는 부처·분야는 달라도 '국민의 건강은 하나'라는 인식 아래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다부처·범국가적 공동대응 및 협력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을 확대해 감염병 정보 공유, 신속한 의사소통 및 대응을 위한 협의체계를 마련한다. 각 부처가 보유한 감염병 감시정보를 공유하고, 위기분석·평가를 통해 공동대응을 지원하는 '차세대 감염병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다부처가 관련되는 감염병 위험요인 발생 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병), 관계부처, 지자체의 공동대응 절차 및 역할분담 등을

매뉴얼화하고, 소관이 불분명한 질환은 질병이 우선 대응토록 한다.

또한 국가·지자체의 감염병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험도가 큰 신·변종감염병은 질병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병은 지자체가 현장 대응하고 질병이 기술지원을 하는 등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질병 내 긴급상황실 및 민간 즉각대응팀을 확대 운영하고, 대규모 환자발생에 대비한 전문병원 지정·운영,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 확충, 감염업무 효율화·전문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결핵 백신, 소아마비 백신 등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를 추진한다.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위기평가체계를 세우고, 감염병 대응 및 관리 기술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

주혜진 기자 hjoo@

2019학년도 아주대학교의료원 신입간호사 채용

아주대학교의료원
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

접수기간 2018. 06. 07(목) ~ 2018. 06. 20(수)

지원자격 · 2019년 2월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또는 기졸업자
· 공인영어성적 소지자

접수방법 홈페이지 (http://hosp.ajoumc.or.kr) 채용공고 참조

